

심사총평

심사위원들은 한국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응모작의 작품성, 예술성, 성장잠재력에 가장 관심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최종 결정을 위해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심의 소감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는데, 응모작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등단’ 여부를 결정하는 신인상이 아니라 등단 작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게 만든 듯했다. 예상보다 응모작이 많은 것에 한 번, 응모작의 수준이 기대보다는 낮았다는 데 또 한 번 놀랐다. 심사 과정은 각 분야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이 각 작품에 점수를 부여하고, 평점이 높은 작품들을 선정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각 분야에 할당된 선정편수를 채울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45명이 응모한 소설 부문의 심사는 소설가 정미경, 박상률, 편혜영, 문학평론가 오창은 네 분이 맡아주었다. 네 명의 심사위원은 문학적 취향과 선택에 의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도록 응모된 작품을 모두 검토하였다. 심사위원들이 보내준 검토 결과를 수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8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중에는 뛰어난 문학성을 담보한 동화 『20년만 사는 아이』도 포함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응모된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고르고 안정적인 구성을 취하며 고른 문장 감각을 보여준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응모작들은 절망적이고 암울한 어조로 시대의 증상을 함께 겪는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등단 5년차 미만의 작가들은 현재 한국 문단의 가장 젊은 상상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발랄하고 활달한 개성적인 작품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개성조차 현실의 통증 앞에서는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상 소수의 작품만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질 정도로, 이번 지원을 통해 작품 활동을 격려하고 개성을 추인하고 싶은 작품이 많았다. 다수의 우수한 작품 중, 8편만 선정한 것은 전체적인 지원 규모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 싶다. 아쉽게도 청소년소설 분야에서는 작품을 선정하지 못했다. 재미있는 발상과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소설적 형상화 과정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도드라지는 작품이 많았다는 의견이었다.

33명이 응모한 시 부문의 심사는 시인 김기택, 김경미, 최치연, 문학평론가 고봉준 네 분이 맡아주었다. 네 명의 심사위원이 시의 작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랐으나 최고점을 받은 두 편을 제외하곤 나머지 작품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시 분야에 할당된 선정작은 6편이었다. 6명의 시인을 모두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작품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심사위원 다수의 의견이었다. 최종심에서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7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평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개별 작품들을 두고 적지 않은 논의가 이어졌고,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평점의 순위가 조금 바뀌었다.

수필은 2명, 평론은 6명, 희곡은 5명이 응모했다. 수필 부문은 시인 김경미, 김기택, 소설가 정미경 세 분이 맡았고, 평론 부문은 시인 김기택, 소설가 편혜영, 문학평론가 오창은, 고봉준 네 분이 맡았다. 희곡 부문은 소설가 박상률, 정미경, 시인 최치연 세 분이 맡았다. 수필 부문에서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합한 수준의 작품을 선정하지 못했고, 평론부문과 희곡부문은 각 2편이 최종심에 올랐다. 평론의 응모작 2편은 점수 차이가 아주 미세하여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한 편은 시의성과 안정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한 편은 사유의 깊이와 문제의식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설 부문의 선정작을 결정하고 미발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설 부분에서 최고점을 받은 이은선 작가의 작품이 기발표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이은선 작가는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응모작은 기발표작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작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심의위원들이 실제로 기발표작과 응모작을 비교해본 결과, 동일한 작품으로 간주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작가와 제목이 같고,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를 떨치기가 어려웠다. 이은선 작가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두 작품이 사실상 다른 작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선정작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가 프로그램의 첫 심의이니만큼 명확한 기준을 밝히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듭 이은선 작가에게는 아쉬움을 전한다. 이후에도 응모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일 작가의 동일 제목이 확인되면, 해당 작품이 설령 수정작이라 하더라도 동일작품으로 간주,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혀둔다.